

아랍어로 ‘알라’ = ‘하나님’

이슬람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오해는,

‘알라(ALLAH)’라는 특별한 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Muslim: 이슬람 신자)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믿는 신과 동일한 신을 믿습니다. 즉, 한국어로 말하자면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하느님)’을 뜻하는 아랍어일 뿐입니다.

*어원적 의미로 본 ‘알라(ALLAH)’는 정관사 ‘알(AL)’과 ‘신’이란 뜻의 ‘일라(ILAH)’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ALLAH = AL + ILAH(The God = The + God)

그러므로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神’은 곧 ‘알라’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즉, 아랍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하느님)’을 ‘알라’라고 칭합니다. 만약 아랍어로 번역된 기독교 성경Bible을 본다면, ‘알라’라는 아랍어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엘로하^{ELOAH}’와 예수 시대의 언어인 아람어로 ‘엘라^{ELAH}’는 ‘알라^{ALLAH}’와 아주 미세한 발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창조주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나님(하느님)’, 미국에서는 ‘God (Lord)’ 등 각각의 나라와 언어에 따라 ‘신神’을 칭하는 명칭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알라’라는 명칭을 ‘알라신’이라고 부르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 이슬람
- 2. 알라 ALLAH**
3. 예언자 무함마드
4. 꾸란
5. 오해와 진실
6. 히잡
7. 돼지고기와 술
8. 삶의 목적
9. 예수
10. 내세
11. 여성억압
12. 이슬람의 5기둥

알라

ALLAH

‘알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아랍어.

하나님은 한 분이며,
낳거나 태어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대등한 것은 없다.



이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jmbooks@hanmail.net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msak.org

chatislamonline.org/ko

blog.naver.com/eunsuya

blog.daum.net/islamforyou

제작: 젠나무민북스(jannahmuminbooks.com) Made by JannahMuminBooks

1. 이슬람
- 2. 알라 ALLAH**
3. 예언자 무함마드
4. 꾸란
5. 오해와 진실
6. 히잡
7. 돼지고기와 술
8. 삶의 목적
9. 예수
10. 내세
11. 여성억압
12. 이슬람의 5기둥

MSAK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알라신 알라

‘알라’의 개념

앞서 설명하였듯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같은 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슬람이 필요한 것일까요? 창조주께서는 인류에게 그 분의 뜻을 알리고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언자 예수의 존재와 그 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기독교인들은 신에게 아들(예수)이 있으며 이 아들을 신과 대등한 존재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즉, 두 종교 모두 원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을 최후의 메시지로 계시하시어 인류를 혼란으로부터 진리로 인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설과 하나님의 성육신화(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를 믿지 않습니다.

*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았으며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알라만을 믿었습니다. 삼위일체설은 인간들에 의해 나중에 생겨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꾸란 112장

신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무슬림^{이슬람신자}이면 누구나 단 4절로 이루어진 꾸란 112장으로 그 답을 할 것입니다.

“말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느니라.

어떤 것도 그분과 대등한 것은 없노라.”

꾸란 112:1-4

이 짧은 꾸란 장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정의내리지 못한 신의 개념을 완전하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신은 한 분이시다. 영원하시다. 낳거나 태어나지 않으셨다. 신과 대등한 것은 없다.

이슬람이 진리로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핵심은 신에 대한 분명한 정의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으며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알라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알라께서는 인간이 방황과 혼란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꾸란을 통해 세심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행이 닥쳐오면 신을 잔인하고 무자비한 존재로서 비판하지만 이슬람에서 신은 한 없이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불행은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인데, 인간

은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신의 탓만 하며 점점 더 신을 멀리합니다. 알라께서는 아무 것도 아니었던 인간에게 생명과 온갖 능력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알라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알라께서 술이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기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지만 술을 마시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다면 그것은 신의 잘못일까요? 만약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헤아려본다면 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임을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신은 한 분이며 그 분은 끝없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

“너희 자신들로부터 배필을 창조하여 그 배필과 함께 살게 하심도 하나님 예증의 하나이며 그분은 또한 너희간에 사랑과 자비를 주셨으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언어들과 피부색을 달리 창조하셨음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시니 실로 그 안에는 전 인류를 위한 예증이 있느니라. 밤에는 잠을 자게 하고 낮에는 그분의 은혜로부터 양식을 구하게 함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니 실로 그 안에는 듣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느니라.”

꾸란 30:21-23